

종말론과 기쁨

임지원**

『침묵의 봄』의 생태 수사 다시 읽기*

초록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의 초기 대표작인 카슨의 『침묵의 봄』은 흔히 인식되는 바와 달리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종말에 대한 절대적 예언이 아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자연의 기쁨을 환기함으로써, 압박한 아포칼립스와 독자들의 현재 사이에 생태적 행동의 시간으로서의 '아직'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은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이 보편화·양산화되고 독자 대중도 그 절망과 경악에 둔감해진 2020년대에 『침묵의 봄』의 수사적 설득력의 원천으로서의 기쁨을 재평가함으로써, 종말론적 레토릭을 넘어선 새로운 생태적 수사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주제어 카슨, 『침묵의 봄』, 생태주의, 환경운동, 종말론, 자연기 문학

1. 들어가며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은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이 위기에 처한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말이다.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apocalyptic environmental rhetoric)이란 당장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지구는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급박한 전지구적 위기의식을 자극함으로써 환경의식을 일깨우려는 글

* 이 연구는 2023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 강연-집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쓰기/말하기 방식이다. 우리가 아는 식의 전지구적 환경위기의식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며, 1960년대 미국의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으로 추적해 올라갈 수 있다. 인류 문명 멸망과 생태적 위기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상상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현재 흔히 문명의 끝을 상상하는 방식은 매우 20세기 중반적인 생태주의적 담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을 활용하는 일련의 20세기 중반 이후 환경 대중서의 영향력 속에서 구축된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말해도 진실이다. 우리의 환경 담론은 우리가 문명의 끝을 상상하는 ‘스타일’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핵심이 되는 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슨(Rachel Carson)의 1962년작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인간 문명이 인간 삶의 기반으로서의 지구 생태를 전방위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상의 생태적·문명적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파하고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¹

그러나 『침묵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레토릭 자체의 성격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1960년대 이후 생태사의 안타까운 진행 때문이다. 우선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은 애초에 충격 효과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 충격 효

1 킬링스워스(M. Jimmie Killingsworth)와 팔머(Jacqueline S. Palmer)는 『침묵의 봄』을 “당대에 비견할 수 없는 수사적 영향력”을 행사한 책이라고 묘사하면서, “이전의 어떤 환경 운동서보다도 가시적으로 영향력 있는 책”이었다고 쓴다. Killingsworth, M. Jimmie, and Jacqueline S. Palmer (2012), “Millennial Ecology: The Apocalyptic Narrative from *Silent Spring* to Global Warming”, *Green Culture: Environmental Rhetoric in Contemporary America* (Ed. by Carl G. Herndl and Stuart C. Brown),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 27. 리온(Thomas J. Lyon)은 “카슨의 작품은 지난 1/4세기 사이 일어난 생태적 각성의 기본 텍스트”였다고 쓰며, 고트리브(Robert Gottlieb)의 환경운동사 역시 “『침묵의 봄』이 떠맡은 임무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의식 형성 그 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Lyon, Thomas J (2001), *This Incomparable Land: a Guide to American Nature Writing*, Minneapolis: Milkweed Editions, p. 82; Gottlieb, Robert (2005), *Forcing the Spr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Washington, DC: Island Press, p. 6.

과에 의존하는 수사적 전략이 이미 60년 이상 이용되어 그 자체로 힘이 빠지기도 했다. 쉽게 말해 ‘이대로 가면 세상 망한다’는 뉴스의 반복된 폭격이 사람들을 오히려 환경 문제에 지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현상에 익숙할 것이다. 환경 관련 뉴스 등에서의 무차별한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 남용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대안 제시나 정보 맥락화 없이 클릭베이트를 위해 자극적으로 끔찍한 미래만 계속 예고하는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의 유효 기간을 위협하는 것은 그 자체의 한계만도 이용방식의 문제만도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 기준으로 종말 이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카슨과 1960년대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이 경고하는 미래가 이미 상당 부분 현실로 다가와 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때의 종말론적 경고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부분의 문제를 예언했지만 흥미롭게도 지구 온난화 속도만은 예측하지 못했다.² 생태 종말이 이미 당면한 현실이 되고 진정한 무지보다는 패배주의 내지 허무주의가 행동과 현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해야 할 시점이다. 즉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유통기한이 다해가고 있는(혹은 이미 다한)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을 대신할, 새로운 환경운동의 언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³

2 두 에를리히(Paul R. Ehrlich and Anne H. Ehrlich)는 1968년 출판된 자신들의 책 『인구 폭탄』(*Population Bomb*)의 당시 극단적이라고 비판받았던 예상들이 대체로 옳았을 뿐 아니라 “어쩌면 『인구폭탄』의 가장 큰 오점은 그 책이 미래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었으며” 지구온난화/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예측하지 못했던 점이라고 쓴다. Paul R. Ehrlich, and Anne H. Ehrlich (2009), “*The Population Bomb Revisited*”, *The Electronic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1(3), p. 66.

3 『침묵의 봄』으로 추적해 올라갈 수 있는, 전략적으로 “환경 묵시록적 주장을 하는 현대적 환경 운동” 전반에 대해서는 킬링스위스와 팔머의 논문이 잘 소개하고 있다. M. Jimmie, and Jacqueline S. Palmer (2012), p. 26. 종말론적 환경론의 한계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이 논문은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이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을 활용한 환경 대중서의 고전인 『침묵의 봄』을 다시 읽는다. 이 다시 읽기의 목적은 초기 환경 대중서의 수사적 힘이 단순히 끔찍한 종말론적 이미지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이는 데 있다. 『침묵의 봄』의 수사적 힘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글쓰기를 통해 생생하게 소환하고 나서, 그러한 기쁨이 조건부로만 가능하다는(혹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이는 데서 나온다.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의 ‘종말’은 자연기문학이 찬양하곤 하던 기쁨들의 부재의 맥락에서 처음 상상되는 것이다. 자연이 주는/주곤 하던 기쁨을 생생히 상상함으로써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은 생태적 종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독자들의 상상력 속으로 생생하게 불러들인다. 카슨의 목표는 자연의 기쁨이 존재하지 않게 된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의 기쁨이 보편적으로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위태로우며, 그 지속 여부가 우리의 행동 및 결정에 달려 있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자연이 주는 기쁨에 감탄하고 이를 생생히 기록하는 것을 주된 매력으로 삼는 영미권 산문의 전통은 흔히 자연기문학(nature writing)이라고 불리며, 기존에는 “환경 수필” 등으로도 번역된 바 있다.⁴ 어떤 의미에서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은 보다 고전적인 형태의 자연기문학이 파생되

관한 종말론적 서사는 대중심리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42)고 하면서 관련된 학제간 연구를 폭넓게 소개하는 김대영의 논문을 참고했다. 김대영(2022), 「마가렛 앳우드의 『매드아담』에 나타난 인류세 환경서사 고찰: 신유물론적 관점과 대중심리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21(4), p. 42. “소셜미디어의 일상적 종말말하기”(the casual doomsaying of social media)를 비판하는 헤스(Amanda Hess)의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칼럼도 참고해 볼 만하다. 헤스는 “소셜미디어의 종말론적 목소리”가 “우리 상황의 희망 없음”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끔찍한 생태적 현실에 스스로를 무디게 만들고 행동 없는 상태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Amanda Hess (2022), “Apocalypse When? Global Warming’s Endless Scroll”,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2/02/03/arts/climate-change-doomsday-culture.html> (접속일: 2023.7.17.).

- 4 자연기문학에 대한 개관은 강용기(2012), 「환경 수필 문학의 개관과 비평: 『문학과환경』 10년의 성과를 회고하며」, 『문학과환경』 11(1); 신문수(2005), 「미국의 자연기: 장르의 위상·특징·계보」, 『문학과환경』 4 참조.

고 변형된 모습인 것이다.

이 글은 문학사적, 수사적으로 환경의식이 자연기 문학 전통을 경유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생태적 종말론 상상력의 기반이 현재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단순한 기쁨들에 대한 감탄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글의 최종적 목표는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이 보편화되고 우리도 그 절망과 경악에 둔감해진 시대에, (1) 우리가 종말을 상상하는 것 또한 본래 자연의 기쁨의 기억을 경유해서였으며, (2)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자연의 유한성에 대해 상상함으로써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였음에 주목함으로써, 종말론적 절망이 일상화된 시대에 절망하지 않고 생태적 상실에 대해 말하고 생각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그리고 포스트 아포칼립스주의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경계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이다. 우선은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의 현재적 의의 내지 효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적 의의까지 잊어버리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테면 『침묵의 봄』의 생태적 종말론 섹션들은 2024년의 우리에게서 너무 익숙하고 뻔하기까지 하지만 출간 당시에는 아주 새로웠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침묵의 봄』의 성공으로 인해 그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이 60년 이후의 우리에게 ‘뻔해진’ 것이다.

『침묵의 봄』의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충격적이고 전면적인 재평가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침묵의 봄』은 자연의 무한함에 대한 믿음을 깨고 ‘유한 자연’을 상상가능성의 영역으로 불러온다. 자연이 무한하고 영원히 재생 가능하다는 오래된

믿음 대신 자리하는 것은 (1) 자연의 모든 부분이 소모 가능하고 인간의 힘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인식임과 동시에 (2) 이것이 인간 문명 내지 기술의 깔끔한 승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줄지 모르는 뒤섞인 축복이라는 인식이다. 『침묵의 봄』은 유한 자연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제시하면서, 자연을 책임 있게 다루지 않고 마구 썼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결과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또 하나 경계하고 싶은 것은 문학 비평 등에서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 및 상상력을 낭만화하는 경향이다. 특히 인간 문명 붕괴와 그에 수반된 생태적 종말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지구 대파국 이후 서사(“포스트 아포칼립스 서사”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는 비평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지구적 생태적 종말 이후를 그린다고 해서 반드시 전지구적 생태적 재앙에 대해 의미 있게 경고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지구 대파국 이후 서사는 지구가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리거나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투쟁을 그리는 생태적 재앙 서사, 에코스틸러 내지 멸망 서사와는 다르다. 지구 대파국 이후 서사는 작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생태적 종말을 불가피한 현실로 제시하는 면이 있다. 오늘날 지구 대파국 이후 서사가 미래를 그리는 서사 중에서도 대중적이고 보편적 형태이기 때문에 더 더욱 이 장르를 생태적 종말을 어쩔 수 없는 미래로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맥카시(Cormac McCarthy)의 소설 『더 로드』(*The Road*, 2006), 2015년 영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Mad Max: Fury Road*) 시리즈 등의 개별 대파국 이후 서사가 생태적 종말을 이해하거나 방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안에서 개별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온 관심을 쏟는다는 점도 지구 대파국 이후 서사와 생태주의의 단순하지만은 않은 관계를 증명한다.

모튼(Timothy Morton)을 필두로 한 일련의 문학 이론가들은 일종의 ‘포스트 아포칼립스주의’를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에 기반한 생태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모튼은 우리의 기존 생태주의가 철학적으로 잘못된 자

연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염된 자연과 보존된 자연, 환경위기와 환경 비위기 상태 등의 전통적 구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재난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생태학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 없는 생태학을 생각하는 것이며, 환경주의 없는 생태학을 생각하는 데까지 간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화는 멸종 같은 것들을 포함한 긴 재난의 역사이다. 다시 말해, 재난은 모든 곳에 있고, 어떤 우주적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Ultimately, thinking ecology beyond disaster means thinking ecology without nature; and even thinking ecology without environmentalism. Looked at one way, evolution is a long history of disasters, such as extinction: which is to say, since disaster is everywhere, it is of no cosmic significance.⁵

모튼은 “재난을 다루지 않는 생태학”(ecology beyond disaster)을 꿈꾸면서, 기존 생태주의의 문제가 자연의 비재난 상태를 가정하는 오류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끝까지 밀고 들어가면 보호해야 할 안정된 자연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튼은 결국 보호해야 할 것으로서의 자연 개념과 자연보호주의적 환경운동의 스타일 자체를 버려야 진정한 생태주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탈인간적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항상 멸망해가고 있고 더러워져 가고 있으므로, ‘원래’ 환경의 복구를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포스트 아포칼립스주의는 실제적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이론을 급박한 실제 문제에 함부로 적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준

5 Timothy Morton (2012), “Romantic Disaster Ecology: Blake, Shelley, Wordsworth and Disaster”, *Romanticism and Disaster*, Romantic Circles, n.p.

다. 모든처럼 말해서 어떤 역사적 사회적 효과가 얻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방사능에 오염된 물과 미세먼지로 뒤덮인 공기가 그렇지 않은 공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기후가 변하기 전의 계절과 그 이후의 계절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주의의 언어는 기후변화 부정론자의 언어에 근접하는 면이 있으며, 그 정서는 기후 패배주의의 정서와 위협할 정도로 닮아 있다.

1960년대에 환경위기의 크기와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무한 자연의 믿음을 깰 파괴적 수사와 상상력이 필요했다면, 무차별적 자연 파괴가 일상이자 현실이 된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포스트 아포칼립스주의에 던지는 나의 또 하나의 의문은 ‘환경 노스텔지어가 항상 거짓되고 불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급격한 환경 질 저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상실의 경험은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온전히 인식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집단행동을 이끌 정서적·윤리적 공동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키슨의 『침묵의 봄』 또한 상실의 공동 경험을 불러냄으로써(혹은 만들어냄으로써) 환경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려고 한 매우 성공적인 시도의 예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상할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언어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 시점에 살펴볼 가치가 있다.

3. 자연기 문학의 전통과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

자연기 문학의 전통과 20세기 중반 이후의 생태적 위기 담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대미문의 생태 위기 앞에서 전통적 자연기 문학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으며 ‘죽었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인류세적 자연기 문학의 가능성을 증명하려는 논의, 자연기 문학과 생태적 위기 의식의 관계를 추적하려는 연구들까지 다양한 논문과 책이 존재한다.⁶ 이 논문의 목적은 『침묵의

봄』을 예로 들어 자연기 문학의 전통(내지 자연기 문학적 상상력)과 인류세적 환경의식이 상호 배제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세기 중반 이후 환경의식 대중화가 자연기 문학의 전통과 그 수사적 설득력에 여전히 기대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 자체가 자연기 문학의 전통을 20세기 중반 이후 생태적 현실에 맞춰 다시 풀어낸 형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침묵의 봄』의 저자 카슨에 대한 논의는 자연기 문학과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의 다면성을 잘 보여준다. 카슨은 전통적 자연기 문학을 출판하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하여 마지막 작품으로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을 대표하는 책을 폭발시킨 흥미로운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보이어는 카슨을 근본적으로 자연기 문학 전통에 속하는 작가로 이해하면서, 그녀의 저작이 “‘마음을 동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힘 있는’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실제로 ‘효과적이고’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연기 문학 작가들의 능력을 보여준다”⁷고 쓴다. 그러므로 카슨은 자연기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 어느 시점 이후 흔히 가해지는 비판—“자연기 문학을

6 “1988년 여름, 자연은 죽었다고”(Nature died in the summer of 1988)고 선언하면서 파(Moira Farr)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파괴되지 않은 자연을 찬양하는 자연기 문학 고전을 독서하는 경험은 슬픔과 상실감만을 불러일으키고, 벌써 지나치게 “익숙해진 종말과 음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태적 종말론 책들의 독서 경험은 무력감만을 주는 상황에서 자연기 문학의 의미와 가야 할 방향을 묻는다. Moira Farr (1993), “The Death of Nature Writing”, *Brick* 47(Winter), pp. 16, 20. 보이어(Christian Hummelsund Voie)와 필리폰(Daniel J. Philippon)의 논문도 흡사한 맥락에서 ‘자연이 죽어가는’ 시대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글쓰기의 생태적 의미를 물으며, 자연기 문학의 현재적/인류세적 의미를 찾아내려고 한다. Voie, Christian Hummelsund (2019), “Nature Writing in the Anthropocene”, *Routledge Handbook of Ecocriticism and Environmental Communication* (Ed. by Scott Slovic, Swarnalatha Rangarajan, and Vidya Sarveswar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201; Daniel J. Philippon (2014), “Is American Nature Writing Dead?”, *The Oxford Handbook of Ecocriticism* (Ed. by Greg Garra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399.

7 Christian Hummelsund Voie (2019), p. 201.

과거에 두고 와야 할 ‘제한된 주의’와 묶는⁸ 식의 비판—에 대한 좋은 반례가 된다. 필리폰 역시 카슨의 저작을 21세기 독자들에게 여전히 유의미한 자연기 문학의 예로 제시한다. 생태적 위기의식을 함유한 카슨의 자연기 문학이 보여주는 것은 자연기 문학이라는 장르가 흔히 비판받는 것과는 달리 “타자로서의 자연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이해⁹와 필연적으로 묶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리폰에게 카슨은 자연을 쓰는 사람이자 생태주의자이며, 『침묵의 봄』은 카슨의 초기 자연기 문학 저작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필리폰은 “『침묵의 봄』에서의 그녀의 논의는 … 바다의 아름다움과 경이를 묘사하는 자연기 문학 베스트셀러인 [카슨의] 이전 책 세 권—1941년작 『바닷바람을 맞으며』(*Under the Sea Wind*), 1951년작 『우리를 둘러싼 바다』(*The Sea Around Us*), 1955년작 『바다의 가장자리』(*The Edge of the Sea*)—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¹⁰고 쓴다.

하지만 뷰엘(Lawrence Buell)은 카슨의 『침묵의 봄』이 자연기 문학의 전통에 속한다는 전제에 의문을 표시한다. 뷰엘은 카슨이 본격적 환경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실제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묘사적 산문시를 통해 아름다운 완전성을 가진, 섬세하게 얽힌 녹색 세계의 일부로 묘사 대상(자연물)에 접근하는 … 이전 책 세 권¹¹의 경향에서 완전히 돌아선다고 쓴다. 뷰엘은 『침묵의 봄』에서 카슨이 “자연이 실제로 파괴될 수 없다는 생각, 우리가 그 파괴에 책임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이란 ‘바다의 가장자리’ 같은 책들을 휴가지에서 읽으면서 즐기는 류의 감정이라는 생각¹²으로부터 떠난다고 본다. 뷰엘에게 있어서 전통적 자연기 문학 및 그 감동 내지

8 Christian Hummelsund Voie (2019), p. 201.

9 Daniel J. Philippon (2014), p. 399.

10 Daniel J. Philippon (2014), p. 400.

11 Lawrence Buell (1995), *The Environmental Imagination: Thoreau, Nature Writing, and the Formation of American Cultur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p. 291.

12 Lawrence Buell (1995), p. 293.

즐거움은 무한 자연에 대한 위험한 믿음과 떼어놓을 수 없이 얽혀 있는 셈이다.

뷰엘이 주장하는 것처럼 『침묵의 봄』은 전통적 자연기 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자연에 대한 글쓰기를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생태적 위기의식을 대중화하여 1960년대 이후 실제 환경운동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침묵의 봄』을 실제로 읽으면 『침묵의 봄』의 설득력이 자연기 문학에 훈련된 작가 카슨의 글쓰기 능력에 크게 의존하며, 카슨의 자연기 문학적 상상력이 카슨의 생태적 위기의식과 깊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침묵의 봄』의 첫 장의 어두운 미래 비전이 좋은 예이다. 이 미래 비전은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필수적이다. 독자들을 놀라게 하고 매혹하는 동시에, 책의 다른 장들이 상세히 묘사하는 역사적 변화를 왜 읽어야 하는지 설득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점은, 카슨이 자연기 문학의 언어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진, 생태적으로 황폐화된 미래의 비전에 이른다라는 사실이다. “사과나무가 꽃을 피우지만 꽃봉오리 사이에서 웅얼덜 벌들이 없고, 따라서 가루받이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열릴 수 없다”¹³는 묘사에서 볼 수 있듯, 『침묵의 봄』이 묘사하고 경고하고 두려워하는 종말론적 미래는 자연에 대해 쓰는 사람이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미래이다. 새들의 노래뿐 아니라 자연기 문학의 언어가 침묵하는 미래인 것이다.

이 연구는 『침묵의 봄』을 자연기 문학적 전통과 대중화된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 사이에 놓음으로써 문학적 전통에서 다양한 생태적 수사의 한계와 가능성을 파악하려고 한다. 또 한편 문학적 맥락으로 생태적 상상력 및 생태적 담론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침묵의 봄』은 환경 문제를 ‘현실화’하는 데 문학이 얼마나 근본적인 역할을 했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주며, 자본주의 사회 속 환

13 Rachel Carson (2002/1962), *Silent Spring*,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p. 2.

경과 문학의 관계를 패배적이거나 nihilistic이지 않은 프레임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준다. 이 연구를 특히 한국어로 수행할 필요성은 환경 문학에 대한 학부 수업 및 각종 특강을 하는 중에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최근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자신도 문학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 문학이 현실에 끼친 영향을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힘” 혹은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어 뿌듯했다는 등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문학의 역할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환경, 특히 동물권 운동의 역사에 있고,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도 현실 감각을 재정의하는 문학적 상상력의 힘에 있을지도 모른다.

『침묵의 봄』을 생태-문학사의 맥락에서 읽음으로써 또 한편으로 현재의 생태적 위기를 문화사적 맥락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경악과 공포가 진공 속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환경 파괴에 대해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대처하려는 언어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이 역사는 물론 실패의 역사이지만 수많은 성공의 역사이기도 하다.), 쉬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

4. 『침묵의 봄』의 기쁨 읽기

『침묵의 봄』의 첫 장으로 돌아가 보자. 카슨의 생태적 종말론 경고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존재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자연의 기쁨에 대한 찬가이기도 하다. 생태적 위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침묵의 봄』 1장에서 카슨은 사실상의 생태적 종말을 맞은 마을의 모습을 그린다. 카슨은 어떤 의미에서 이 미래를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카슨의 가상적 마을은 거의 전적으로 부재와 상실의 언어로 묘사된다. 이 미래는 “[새들의] 소리가 없는 미래”¹⁴이며 “들판과 숲과 늪에 침묵만

이 드리운”¹⁵ 미래이다. “농장의 암탉이 알을 품어도 어떤 병아리도 태어나지 않고”¹⁶ “사과나무가 꽃을 피우지만 꽃봉오리 사이에서 웅얼덜 벌들이 없고, 따라서 가루받이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열릴 수 없는”¹⁷ 미래이다. “한때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도로변에 갈변하고 시든 식물만이 늘어서 있고”¹⁸ “이들 또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버려져 침묵에 잠긴”¹⁹ 미래이다.

카슨의 글이 주는 충격은 전통적 자연기 문학의 기대가 배반당하는 충격이기도 하다. 카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미래는 전통적 자연기 문학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인간이 만든 어떤 것보다 오래 지속되리라고 여겼던 기쁨이 상실된 미래이다. 이 미래는 감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대상의 부재로 정의된다.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과 상상력의 대화 과정에서 생태적 종말론 상상력의 충격 내지 참혹함만이 재생산되고 강조되며 이 비전이 애초에 충격적이었던 까닭은 잊혀진 경향이 있는데, 카슨은 생태적으로 황폐화된 미래의 참혹함을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으며, 그를 묘사하는 가학적인 즐거움 속에 필요 이상으로 머무르지도 않는다. 카슨에게 있어 끔찍한 미래의 상은 자연이 주던/자연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었는지 독자들이 다시 상기하고 절감하도록 증용하는 도구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카슨의 생태 목시록적 레토릭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카슨이 그리려는 종말의 시간성에 대해서도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카슨의 종말론적 레토릭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논했듯 카슨의 종말론이 새로웠던 탓도 있지만, 카슨의 종말론의 시간성이 21세기의 문

14 Rachel Carson (2002/1962), p. 2.

15 Rachel Carson (2002/1962), p. 2.

16 Rachel Carson (2002/1962), p. 2.

17 Rachel Carson (2002/1962), p. 2.

18 Rachel Carson (2002/1962), p. 2.

19 Rachel Carson (2002/1962), p. 2.

화적 상상력을 잠식한, 양산형 생태적 종말론 상상력의 시간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카슨은 생태적 종말을 생생하게 그리면서도 결코 이를 불가피한, 이미 다가와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미래로 제시하지 않는다. 카슨의 종말론적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이다.

이 마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 마을에 비견될 만한 장소는 미국이나 세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내가 묘사한 모든 불행을 겪은 공동체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모든 재난은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많은 실존하는 공동체들이 이미 이와 같은 재난의 상당수를 겪었다. 무시무시한 유행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살금살금 우리 곁까지 왔으며, 이 상상된 비극은 쉽사리 우리가 모두 아는 진짜 현실이 되어버릴 수 있다.

This town does not actually exist, but it might easily have a thousand counterparts in America or elsewhere in the world. I know of no community that has experienced all the misfortunes I describe. Yet every one of these disasters has actually happened somewhere, and many real communities have already suffered a substantial number of them. A grim specter has crept upon us almost unnoticed, and this imagined tragedy may easily become a stark reality we all shall know.²⁰

「미래를 위한 우화」(“A Fable for Tomorrow”)라는 1장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카슨의 종말론적 미래는 아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아직은 “상상된 비극”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쉽사리 … 진짜 현실이 되어버릴 수 있”겠지만 말이다. 카슨은 자신이 쓰는 “이 모든 재난은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많은 실존하

20 Rachel Carson (2002/1962), p. 3.

는 공동체들이 이미 이와 같은 재난의 상당수를 겪었다”고 하며 생태적 재앙과 나아가 종말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이 그리는 것 같은 재난을 모두 겪은 종말의 공간은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건을 단다. 세상에는 새소리가 사라진 수많은 숲과 꽃이 사라진 수많은 도로변이 있다. 이것은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새소리와 모든 꽃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카슨은 이 부분에서 『침묵의 봄』이 하려는 일이 어느새 우리 곁에 스며들어 왔지만 아직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유령”의 모습을 포착해 보여줌으로써 이 미래를 회피하도록 해주려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카슨이 새소리가 사라진 숲과 꽃들이 사라진 도로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애도하기 위해서도 절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것들을 아직 지킬 수 있으며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남은 새소리와 아직 남은 꽃을 지킬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해주기 위해서이다.

이 섬세하지만 분명한 구분이야말로 카슨의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이 행동의 언어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이지만, 대파국 이후 황폐화된 지구를 그리는 서사의 대중화와 양산화 과정에서 이 구분은 자꾸만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 카슨의 종말론적 레토릭이 하려는 일은 자신이 그리는 종말론적 미래와 독자들의 현재 사이에 생태적 행동의 시간으로서의 ‘아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남은 것들을 위한 행동의 시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아직 말이다. 카슨의 종말론적 미래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도구적으로, 최악의 미래의 가상체험으로서만 기능한다. 『침묵의 봄』에서 종말론적 미래를 상상하는 목적 자체가 문학 속 경고된 미래와 독자들의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경고하는 미래와 우리의 현재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환경 문제에 대한 패배주의적 감성만 확산시키는 양산형 종말론적 뉴스나 지구 대파국 이후 서사는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을 빌리지만 그 창시자들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카슨의 본문도 『침묵의 봄』의 생태주의가 생태적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와 임박한 종말론적 미래의 섬세하고 미묘한 구분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준다. 살충제의 과용으로 한 지역의 식물이 절멸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소개하고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지구의 녹색 외투」(“Earth’s Green Mantle”) 장은 도로변 꽃과 나무들이 주는/주곤 하던 기쁨에 대해 생생히 묘사하면서 시작한다. 다음 대목은 한 예이다.

나는 길게 뻗은 도로를 또렷이 기억한다. 조경사 자연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선명한 꽃으로 강조되어 있고 가을이면 보석처럼 무리 지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던 오리나무, 가막살나무, 고사리, 향나무의 경계지를 제공하던 곳이다. 길은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았다. 몇몇 급한 커브나 교차로에서는 나뭇가지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살충제의 시대가 왔을 때 그 도로변을 따라 지나던 몇 마일은 빠르게 지나쳐야만 하는 길이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멸균된 흉한 세상—기술자들이 만들어 내도록 우리가 내버려 둔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견뎌야만 할 풍경이 된 것이다. 그러나 군데군데 관리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지 못하고 지나간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간과의 산물인 아름다움의 오아시스가—금욕적이고 군사적인 통제의 한가운데에도—남아 있다. 이 오아시스들은 길의 대부분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 장소들에서 떠다니는 흰 클로버나 구름을 이룬 자색 털갈퀴덩굴, 불꽃의 잔처럼 피어오르는 목련의 모습에 내 영혼은 움직이곤 했다.

I know well a stretch of road where nature’s own landscaping has provided a border of alder, viburnum, sweet fern, and juniper with seasonally changing accents of bright flowers, or of fruits hanging in jeweled clusters in the fall. The road had no heavy load of traffic to support; there were few sharp curves or intersections where brush could obstruct the driver’s vision. But the sprayers took over and the miles

along that road became something to be traversed quickly, a sight to be endured with one's mind closed to thoughts of the sterile and hideous world we are letting our technicians make. But here and there authority had somehow faltered and by an unaccountable oversight there were oases of beauty in the midst of austere and regimented control—oases that made the desecration of the greater part of the road the more unbearable. In such places my spirit lifted to the sight of the drifts of white clover or the clouds of purple vetch with here and there the flaming cup of a wood lily.²¹

카슨의 글은 생태적 파괴에 대한 지탄이고 이러한 파괴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경고이면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의 기쁨을 절감하는 순간이고, 그 기쁨을 지키자는 강력한 권유이다. 살충제 남용으로 인한 생태학적 파괴를 비판하는 이 대목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에 대해 생생히 묘사하고 그 기쁨을 찬양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카슨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선명한 꽃으로 강조되어 있고 가을이면 보석처럼 무리 지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던 오리나무, 가막살나무, 고사리, 향나무의 경계지”에 대해 회상하면서 문단은 시작한다. 이 특정한 경계지와 그것이 주던 기쁨은 비록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멸균된 흉한 세상”이 완전히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은 아니다. 카슨이 그리는 미국의 ‘현재’ 도로변은 “멸균된 흉한 세상”의 예고편인 동시에, 무차별적인 살균제 살포의 와중에도 살아남은 나무와 꽃이 군데군데 “아름다움의 오아시스”를 이루는 장소이다. 보석 같은 열매로 무성하던 전과 같지는 않더라도 “떠다니는 흰 클로버나 구름을 이룬 자색 털 갈퀴덩굴, 불꽃의 잔처럼 피어오르는 목련”이 작가의 마음을—“영혼을”—움직이는 곳이다. 또한 콘크리트 도로변의 나무와 꽃을 기쁨의 원천으로 호

21 Rachel Carson (2002/1962), pp. 70-71.

명하는 데서 카슨의 생태주의가 미국적·원시적 야생에 대한 불가능하고 문 제적인 회구와는 결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카슨의 생태주의는 자연을 문 명이 없는 곳에 비로소 존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원시주의(primitivism) 에서 벗어나, 인간 문명의 일부이며 인간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의 자연을 인식한다.

『침묵의 봄』은 끔찍한 경고의 글이지만 절망으로 쓰여진 글은 아니다. 카슨은 이 ‘아직 남은’ 자연의 기쁨에 마음이 움직여 『침묵의 봄』을 집필하 는 것이며, 이 기쁨이 독자의 마음 또한 움직이기를 바라며 쓴다. 이상적으 로는 마음의 동함이 생태주의적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꿈꾸면서 말이다. 카슨의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의 목적은 우리가 아직 종말론적이지 않은 현재에 있음을, 생태주의적 행동이 긴급히 필요할 뿐 아니라 가능한 시간에 있음을 알리는 데 있다.

프루스트(Robert Frost)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을 레 퍼런스하는 『침묵의 봄』의 마지막 장 「또 다른 길」(“The Other Road”)에서 카 슨은 다시 한 번 자신이 그토록 생생히 제시한 종말론적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임을 강조한다. 카슨에게 있어 생태적 종말론 미래는 궁극적으로 는 아직 아름다운 지구의 생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포일(foil)이며,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 온 길은 언뜻 보기에 쉬운 길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매끄러운 고속도로의 끝에는 재난이 기다 리고 있다. 도로가 다른 쪽으로 구부러지는 길—“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마지막,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의 지구의 보존을 보장해주는 종착점으로 향할 기회 말이다.

The road we have long been traveling is deceptively easy, a smooth superhighway on which we progress with great speed, but at its end lies disaster. The other fork of the road—the one ‘less traveled by’—

offers our last, our only chance to reach a destination that assures the preservation of our earth.²²

갈릴길의 레토릭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섬세한 시간적 구분을 함축한다. 이 구분이야말로 전통적 자연기 문학의 시간성과 인류세적 위기의식의 차이를 낳는 구분이며, 카슨이 촉발한 환경운동의 시간성과 최근 만연한 생태적 패배주의의 시간성을 다르게 만드는 구분이다. 카슨은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매끄러운 고속도로”의 끝에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려면” 지금 당장 다른 길로 꺾어야 한다고 역설한다.²³ 핵심은 우리가 ‘아직’의 시간에 살고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즉 묵시록적 미래가 임박한 현실이지만 그 미래가 아직은 회피될 수 있고 회피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침묵의 봄』의 어두운 상상적 체험의 핵심에는 아직 남아 있는 자연의 기쁨에 대한, 새삼스러우면서 새로운 실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종말론적 가상 체험이 무력감이나 패배주의가 아니라 강력한 행동의 메세지로 전환될 수 있다.

22 Rachel Carson (2002/1962), p. 276.

23 “우리의 지구”라는 표현도 흥미롭다. 카슨의 생태주의는 인간과 인간이 아는 형태의 지구는 공생 관계에 있다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 만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며, 우리가 아는 지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에 근간한다. 즉 카슨의 생태주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의 운동이다. 고트리브도 카슨의 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카슨은 오염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대중화되어 있지 않던 시대에 “인간과 자연 환경의 관계가 … 때 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작가라고 한다. Gottlieb, Robert (2005), p. 125. 비인간적 자연관을 진정한 생태주의의 근간으로 제시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주의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카슨의 생태주의가 20세기 후반 이래 ‘실제’ 환경 운동을 이끈 것이다. 이 흐름을 무시하지 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버드나무에 대하여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이와 같이 다시 읽음으로써 카슨의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이 왜 의미 있는 운동으로 번역될 수 있었는지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생태학적 수사가 생태주의 운동의 기반이 되고 어떤 수사가 그렇지 않은지의 조건들 또한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핵심은 시간성이며, 종말과 ‘우리의 현재’의 관계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있다. 본격 생태적 종말론 레토릭 자체의 수명은 다했더라도, 압박한 아포칼립스와 현재 사이에 행동의 시간을 만들어내려는 카슨은 의미 있는 생태적 글쓰기의 가능한 모양새를 제시한다. 점점 생태학적 종말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 사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최악의 가능성과 현실이 서로를 닮아가는 2024년에 종말론적 절망으로 빠져들어 가기를 ‘아직’ 거부하는, 카슨의 언어의 현재적 재활용의 좋은 예를 하나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²⁴

한겨레 21에 김양진 기사가 2024년 4월 19일 게시한 전주천 버드나무 별목에 대한 기사(『봄 맞아 물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 평 모래톱 속대밭으로』)는 자연 파괴의 폭력성과 참혹함을 생생히 그려내면서도 ‘다 끝났다’는 식의 패배주의나 종말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재적 자연기 문학의 좋은 예이다. 열쇠는 『침묵의 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기쁨을 ‘우리’의 공통 기억으로 소환하는 데 있다.

기사는 사진으로, 글로 전주시 남천교 버드나무 별목의 참상을 고발하지만 단순히 또 하나의 참사의 기록은 아니다. 이 기사는 생태 파괴에 대한

24 『침묵의 봄』을 환경교육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읽으면서 “서정적인 감수성이 어우러진 레이첼 카슨식 ‘자연 받아쓰기’를 토대로 하는 환경문제 교육 방식이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윤창식의 논문도 유사한 시도의 한 예일 것이다. 윤창식(2012), 『Rachel Carson의 ‘자연 받아쓰기’와 ‘환경문해(環境文解)’ 교육』, 『문학과환경』 11(2), p. 128.

고발인 동시에 봄의 버드나무숲이 주는/주곤 하던 기쁨에 대한 생생한 환기이기도 하다.

이른 봄 냇가의 보송보송 버들개지(버드나무 꽃)들이 서둘러 흰색 털을 떨군다. 자세히 봐야 보이는 작고 노란, 수십 개의 꽃밥 무더기가 일제히 일어선다. 잔뜩 험찼던 꽃밥이 터지면 짝을 찾아 바람을 탄다. 봄기운이 완연한 2024년 3월 15일 전북 전주에는 그러나, 봄을 무색케 하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물가를 따라 버드나무숲이 우거지고 물억새숲이 자연스러운 하천 풍치를 이루던 우리나라 대표 생태하천인 전주천이 배어진 버드나무 수백 그루의 밀동만 헹뎡그렇하게 남은 척박한 땅으로 변한 것이다.²⁵

카슨의 “멸균된 흉한 세상”에서도 “보석처럼 무리지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던 오리나무, 가막살나무, 고사리, 향나무의 경계지”의 기억이, 떠나는 흰 클로버나 구름을 이룬 자색 털갈퀴덩굴, 불꽃의 잔처럼 피어오르는 목련”이 작가의 마음을 - 그리고 아마도 독자의 마음을 - 움직였던 것처럼, 현재형으로 쓰여진 첫 문장은 남천교의 버드나무숲이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음에도 우리가 아직 모든 버드나무의 기쁨이 끝난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이미지적으로도 기사는 황폐화된 남천교 일대의 모습을 고발하는 사진들을 실으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살아있는 버드나무의 모습을 병치시켜, 버드나무가 주곤 했고, 앞으로도 줄 수 있는 기쁨을 계속해서 환기한다. 이 병치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생태 파괴의 참혹함을 더욱 잘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아직’의 시간에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기사는 또한 버드나무숲이 주곤 하던 기쁨을 단순히 개인의 시적 감상

25 김양진(2024), 「봄 맞아 물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 쑥대밭으로」, 한겨레 웹페이지, 한겨레21, <https://v.daum.net/v/20240419144505016>(접속일: 2024.7.17).

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기억이자 행동의 근간으로 소환한다. 버드나무의 기억은 기자와 기사 속 환경운동가들이 부정확하고 부정적인 “개발론”으로 생태 파괴의 원인을 추적하도록 이끈다.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와 댓글의 형태로, 버드나무 별목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전 주천에 모이는 주민들 마음”이 모이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기사는 참사의 기록이지만 일종의 공동 행동(혹은 그 전조)의 기록이기도 하다.

기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를 인용하면서 마무리된다. “저 물녘, 노을 진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버드나무 한 그루/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힘으로/ 그 밑을 지나왔던 기억을 되살린다”는 이홍섭 시인의 시이다. 자연의 기쁨을 찬양하는 시는 자연 파괴에 대한 고발이자 생태주의적 요청이 된다. 문학과 생태주의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증언이다.

참고문헌

- 강용기(2012). 「환경 수필 문학의 개관과 비평: 『문학과환경』 10년의 성과를 회고하며, 『문학과환경』 11(1).
- 김대영(2022). 「마가렛 앳우드의 『매드아담』에 나타난 인류세 환경서사 고찰: 신유물론적 관점과 대중심리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21(4).
- 김양진(2024). 「봄 맞아 몰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 속대밭으로, 한겨레 웹페이지, 한겨레21, <https://v.daum.net/v/20240419144505016>(접속일: 2024.7.17).
- 신문수(2005). 「미국의 자연기: 장르의 위상·특징·계보, 『문학과환경』 4.
- 윤창식(2012). 「Rachel Carson의 ‘자연 받아쓰기’와 ‘환경문해(環境文解)’ 교육, 『문학과환경』 11(2).
- Buell, Lawrence (1995), *The Environmental Imagination: Thoreau, Nature Writing, and the Formation of American Cultur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son, Rachel (2002/1962), *Silent Spring*,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 Ehrlich, Paul R., and Anne H. Ehrlich (2009), “The Population Bomb Revisited”, *The Electronic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1(3).

- Farr, Moira (1993), "The Death of Nature Writing", *Brick* 47(Winter).
- Gottlieb, Robert (2005), *Forcing the Spr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Washington, DC: Island Press.
- Hess, Amanda (2022), "Apocalypse When? Global Warming's Endless Scroll", *New York Times*, The New York Times Company, 2023.7.17. <https://www.nytimes.com/2022/02/03/arts/climate-change-doomsday-culture.html>
- Killingsworth, M. Jimmie, and Jacqueline S. Palmer (2012), "Millennial Ecology: The Apocalyptic Narrative from *Silent Spring* to Global Warming", *Green Culture: Environmental Rhetoric in Contemporary America* (Ed. by Carl G. Herndl and Stuart C. Brown),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Lyon, Thomas J. (2001), *This Incomparable Land: a Guide to American Nature Writing*, Minneapolis: Milkweed Editions.
- Morton, Timothy (2012), "Romantic Disaster Ecology: Blake, Shelley, Wordsworth and Disaster", *Romanticism and Disaster*, Romantic Circles, https://www.academia.edu/1294476/Romantic_Disaster_Ecology_Blake_Shelley_Wordsworth (검색일: 2023.7.17.).
- Philippon, Daniel J. (2014), "Is American Nature Writing Dead?", *The Oxford Handbook of Ecocriticism* (Ed. by Greg Garra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oie, Christian Hummelsund (2019), "Nature Writing in the Anthropocene", *Routledge Handbook of Ecocriticism and Environmental Communication* (Ed. by Scott Slovic, Swarnalatha Rangarajan, and Vidya Sarveswar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BSTRACT

Apocalypticism and Joy

Rim, Jiwon*

Rereading the Environmental
Rhetoric of *Silent Spring*

Tracing the now-familiar apocalyptic environmental rhetoric back to Rachel Carson's *Silent Spring*, this article argues that *Silent Spring*, quite contrary to the common perception, does not draw its persuasive power from the prediction of inevitable environmental "end." I read *Silent Spring* as essentially an attempt to carve out the time of ecological action between the impending-but-not-inevitable doom and readerly present, evoking the still-remaining joys of nature. We are living in a time in which apocalyptic environmental warnings and their "shock" became everyday news. By reevaluating everyday joy as an unexhausted source of the rhetorical power of *Silent Spring*, this article attempts to draw outlines of a new environmental rhetoric beyond the overused apocalyptic one.

Keywords Rachel Carson, *Silent Spring*, Ecology, Environmental Movement, Apocalyptic Rhetoric, Nature Writing

* Lecture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